

‘비상경영’ 한전, 4분기만에 흑자전환 성공

3분기 영업이익 1조 3592억원
김 사장 취임후 자구노력 성과
연말까지 고강도 경영효율화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사진)이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의 ‘비상경영’이 일궈낸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한전은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한전은 이날 3분기 영업이익 1조 3592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한전은 발전 자회사들의 연료비 상승 부

담에 수익성이 뛰어난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실적이 곤두박질치던 상황이었다. 지난 2분기에는 신규설비 투자를 확대하면서 감가상각비가 증가하는 것까지 더해지며 6871억원의 영업적자를 냈었다. 특히 정부가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주면서 3587억원의 비용 손실을 떠안았음에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영업손실’이라는 악조건 속에 취임한 김종갑 사장이 비상경영



체제를 통해 자구노력을 추진한 게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도 타 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 단가, 판매량 증가 외에 비용절감 등의 자구노력이 한몫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사장은 취임 이후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뒤 내부 고비용 요소를 찾아내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자구노력에 공을 들였다. 전력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비·보수를 자체 수행하거나 송·배전 설비 시공 방법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7000여원을 절감했고 송·배전설비 및 통신설비 임대수의 확대, 해외 발전사업 조기 배당 실현 등 1조1000억원 규모의 고강도 경영

효율화를 진행해왔다. 한전은 올해 말까지도 전력그룹사와 공동으로 비용절감 등 2조500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조 3777억원 감소한 데는 국제연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와 구입전력비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내년으로 예정된 사우디 원전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에 대비해 원전 추가 수주 노력 등 해외사업 확대를 추진하겠다”면서 “전력사업 다변화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사학연금공단 이사장배 바둑대회 성료

사학연금공단(이사장 이종훈)은 최근 ‘제4회 사학연금 이사장배 바둑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이번 바둑대회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비스 프로그램의 하나로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6일부터 호남지방 등 전국 각 지부에서 실시된 예선을 통해 240여명이 실력을 겨뤘 44명이 최종 결선에 진출해 우승자를 가렸다. 이종훈 이사장은 “바둑대회 승패를 떠나 연금수급자들이 소통하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고객 니즈를 반영해 다양한 고객만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한전KPS, 중소협력사와 동반성장·공정거래 협약

신규 협력사 등록 20개사 참여
성과공유제 시행 등 사업 추진

한전KPS(사장 김범년)가 중소정비협력사와 동반성장과 공정거래 실천의지를 다짐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 상호 경쟁력을 향상 시켜나가기로 했다. 한전KPS는 올해 동반성장 주간에 맞아 최근 본사 5층 창조홀에서 한전KPS 박정수 경영관리본부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와 ㈜광양주식회사 등 올해 신규 등록 협력업체 및 물품·용역 거래업체 20개사 기업 대표들과 함께 ‘한전KPS-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정거래 질서유지 및 동반성장을 위한 관련법규 준수 ▲물품·공사·용역 등 거래시 표준계약서 사용 ▲자율적 공정거래 질서 문화확립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적극 노력 ▲협력사 기술개발 촉진, 전문능력 제고, 재무 건전화 등 경쟁력

한전KPS-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식
2018. 11. 9(금) 한전KPS

한전KPS와 중소정비협력사 관계자들이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KPS 제공>

향상 위한 지원프로그램 마련 ▲청렴계약 주요 골자다. 조건 준수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이 또 한전KPS는 협력사 시공품질 및 기업

가지 향상을 위한 ISO 및 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 취득 지원 등 역량강화 지원과 기술인력 활용을 통한 해외사업 동반진출 등 판로 개척 지원, 정비공사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정비기술교육 시행 등 인력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신규급 지급 확대 및 공공구매론, 협력기업대출 등 금융지원, 보유기술 이전 및 사업과 지원을 통한 성과공유제 시행 등을 통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하는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전KPS 관계자는 “중소정비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강화해 고객만족은 물론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방향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협력사의 고충을 해소하며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전KDN 직장내 성범죄 근절 팔 걸었다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대책 추진
한전KDN(사장 박성철)은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해 대응책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한전KDN은 신입직원 중 여성 입사자가 5년전에 비해 8배에 달하는 등 최근 여성 직원 비율이 급증함에 따라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CEO서신 발송, 양성평등 공모전 UCC 수상작품 상영 등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을 받고 있다. 성범죄 발생 시 신고자 인권보장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문 상담기관(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과 1대 1 상담센터운영 계약을 맺고 법률전문가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법률상담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인사·윤리부서장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사내 성희롱·성폭력대응센터에서 가해자 격리 등 인사조치, 피해자 보호, 법률지원 등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부터 징계양정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고의 및 중비위행위로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를 즉각 퇴출토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운

영하고 있다. 한전KDN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은 양성평등, 인권보호에 중요한 사항”이라며 “직원의 인식과 제도강화 외에도 협력사와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더 강화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협력사 직원과 비정규직원을 포함한 전직원 인권침해 설문조사를 진행해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으로, 올해를 인권경영 원년으로 삼아 노·사공동인권경영선포식을 진행, 협력사와 공동으로 인권존중 문화 실현 등 방향을 수립한 바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콘텐츠진흥원 19·20일
서울서 ‘스타트업콘 2018’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원장 김영준)은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크레아홀에서 ‘스타트업콘(STARTUP:CON) 2018’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연결의 시대, 스타트업이 말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올해 스타트업콘은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스타트업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행사에는 창업자(스타트업)와 콘텐츠 관련 분야 창작자 및 예술가 등 500여명이 참석하며 ▲퍼포먼스 ▲쇼케이스 ▲공연 ▲워크숍 ▲네트워킹 리셉션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안전결의대회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윤석균)는 지난 12일 안전보건공단 담당 안전체험교육장에서 공사현장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남지역 18개 지사의 지역개발부장, 수자원관리부장 및 공사감독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안전결의와 체면교육을 병행해 현장관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역량강화의 효율성을 높였다. 윤 본부장은 “건설현장의 공사감독은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의식과 위험요인을 발견하는 안목과 빠른 대처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공사감독 역량강화를 통해 무재해 달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aT ‘소프트웨어보호대상’ 국무총리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이 병호)는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6회 소프트웨어산업보호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진> 올해로 6회째 맞는 소프트웨어산업보호대상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 발전의 신 성장 동력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이용 환경 촉진 및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취지로 개최하고 있다. aT는 제4회 소프트웨어산업보호대상에서도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aT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환경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체계적인 라이선스 보유와 운영을 위한 자산관리 솔루션을 도입하는 등 다방면에서 소프트웨어 산업보호와 활성화에 앞장선 점을 인정받아 수상 명단에 올랐다. /박기용 기자 pboxer@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